1 동정

▶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오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설악한화콘도에서 '2010년도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 **한용근** 인쇄문화인 낚시회 회장은 지난 4월 17일 충북 음성군 모란지에서 시조회를 개최했다.

▶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4월 15일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유태우**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2 부음

▶ **채대기** 삼성인쇄㈜ 전무이사의 모친이 지난 4월 19일 별세했다.

▶ **김상호** 삼아인쇄사 대표의 부친이 지난 4월 18일 별세했다.

▶ **우상형** 로얄비지네스폼㈜ 대표이사의 부친이 지난 4월 13일 별세했다.

▶ **한승국** 태창엔지니어링(주) 회장의 장모가 지난 4월 8일 별세했다.

▶ **김정전** 대화특수인쇄공사 대표의 부친이 지난 4월 7일 별세했다.

▶ **이상용** 제일사진인쇄(주) 대표이사의 모친이 지난 4월 7일 별세했다.

3 화촉

▶ **이우열** 명성칼라 대표의 장녀 지연 양이 지난 4월 24일 웨딩의 전당 모나크에서 화촉을 밝혔다.

▶ **정주현** 정우문화사 대표의 장남 순우 군이 지난 4월 3일 더 제니스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유경조** 삼우인쇄공사 대표의 장녀 수희 양이 지난 3월 27일 백석동성당에서 화촉을 밝혔다.

▶ **이병도** 아트미디어(주) 대표이사의 장남 호동 군이 지난 3월 27일 지구촌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인쇄단체 · 기관뉴스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 이사회 새 전무이사에 유창준 씨 선임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호텔PJ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상정의안들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신임 전무이사에 유창준 사무국장 겸 편집국장을 선임했다. 유 전무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이와 함께 안광범 이사의 사임에 따른 이사 보선과 포상심사위원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홍우동 회장은 안건 심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업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더 많은 국고가 지원되도록 하겠다"면서 "협회와 업계 발전을 위해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4분기 재무제표 보고에 이어 '2010년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와 사업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오세익 전임 전무이사는 근속 40주년을 맞은 최근 사임했다.

인협 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연석회의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4월 9일 오후 5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사업'과 협회 운영방안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회장을 비롯 민창준 부회장, 김국 부회장, 김남수 부회장(홍보미디어위원장), 이재환 품질관리위원장, 유창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홍우동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고와 지방비 지원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우리 업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인협,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쇄전문 인력양성 무상 교육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인디자인 편집실무(매주 목요일), 디지털인쇄 실무(매주 금요일) 등 2개 과목이 개설되며,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료 수강이며, 관련교재 또한 무상 제공된다.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신청서를 인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5월 10일까지 1과정당 25명씩 선착순 마감한다. 한편 인협은 하반기에 인쇄물수출전문가 양성과정, 편집 · 교정 실무 과정의 교육과정도 마련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홈페이지_ www.print.or.kr, 전화 (02)335-5881

인협, 바른바탕체 업그레이드해 홈페이지 등록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해 개발한 '바른바탕체'를 업그레이드하여 최근 인협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바른바탕체는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바른바탕체는 지난해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산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인쇄공용서체로 개발된 것으로 한글 7050자(중간, 가는, 굵은체 포함)와 약물 2950자 등 총 1만 8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완벽한 바른바탕체를 위해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수차 수정작업을 거쳐 이번에 한글 약물부분까지 개선한 것이다. 등록파일은 사용용도별 CIDPS, MacTTF, OTF, PS, Winttf로 구분되어 있다.

홍우동 회장은 "처음으로 인쇄공용서체를 개발하게 됨에 따라 보다 완성된 서체를 만들기 위해 계속적인 수정작업을 해 왔다. 이번에 한글 약물부분까지 개선했으므로 많은 분들이 바른바탕체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2차 인쇄공용 서체개발 입찰공고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차 인쇄공용 서체개발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앞서 서체개발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회의를 열고 입찰방법과 심사기준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입찰서 제출기한은 5월 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낙찰자 선정은 5월 28일 오후 6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2차로 개발되는 인쇄공용 서체는 인쇄업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돋움(각진고딕) 서체 1종(10,008자)이다. 한글 기본(중간)체(2350자), 가는체(2350자), 굵은체(2350자)와 함께 기호 및 숫자 등 약물 2958자(기본(중간)체 986자, 가는체 986자, 굵은체 986자)를 개발할 예정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서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 가능하며, 경쟁입찰로 이뤄진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서체개발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_ www.print.or.kr, 전화 (02)335-5881

4 이전

▶ **나현문화**(대표 안유상)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140번지 301호로 이전했다.

▶ **정우D&P**(대표 김은숙)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5 1층으로 이전했다.

▶ **트윈**(대표 나현숙)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예관동 70-27 미디센터 602호로 이전했다.

5 변경

▶ **삼성종합인쇄사**(대표 조기홍)는 최근 상호를 DMS삼성으로 변경했다.

▶ **서원기업(주)** 대표이사에 최근 배경훈 씨가 취임했다.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내 직지 금속활자판 상설 전시

청주시는 한 · 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유민)과 지난 4월 1일 전시협약을 체결하여 직지금속활자 인판과 영인본을 상설 전시했다.

협약서 내용은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은 전시 설치장소를 제공하며 ▲고인쇄박물관은 전시장에 전시할 유물 및 자료를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에 기증한다. ▲쌍방은 정기적으로 상호방문을 통하여 학술 정보와 관련 자료를 교환하는 내용이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 내 직지 금속활자 인판과 영인본을 1층 전시관에 상설 전시하여 문화원 방문객들에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지문화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쇄문화에 관심이 많은 모스크바 국립인쇄대학부설 인쇄 박물관과 현대 서예박물관에 직지영인본을 기증하여 현존 최고(最古) 고인쇄문화의 가치를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지의 가치와 탄생지 청주의 문화사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협, IPEX(6홀521)에 한국인쇄관 조성 인쇄물 및 기자재 수출활동 전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오는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인쇄기자재 전시회인 'IPEX2010'에 약 30평방미터 규모의 한국인쇄관을 조성하여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 수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협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한국이앤엑스와 공동으로 동 인쇄관을 조성하며 이곳에는 찬란한 인쇄문화와 현대의 인쇄물, 인쇄기자재 카탈로그 등을 전시하는 한편, 직지 및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시연행사도 갖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KIPES(국제인쇄산업전)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나라에서는 은성정밀인쇄㈜, 청아문화사, ㈜아시아프린팅, ㈜도일기계공업, 광창기계, 명신물산, 지성기계공업, ACE기계㈜, 경일기공사, 동방인쇄공사, 두산동아, 신우프레스㈜, ㈜광인사, ㈜국제기계, ㈜동양잉크, 연미술, 크리커뮤니케이션, 국제전산폼기계, ㈜미래엔컬처그룹, ㈜고려디지웍스, 경구개발공작소, 대호기계 등 22개 업체가 카탈로그 및 인쇄물을 인협을 통해 위탁 전시한다.

인협의 관계자는 "IPEX 전시장에 우리나라에서 홍보관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통해 인쇄물 수출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쇄기자재의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린이 책잔치에 직지 및 인쇄문화홍보관 설치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에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와 인쇄문화를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된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청주시와 공동으로 이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린다.

'책과 함께 캐릭터와 놀아요'를 주제로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출판도시 입주사와 외부 출판사, 관련 단체 등 80개가 참여할 예정이다. 책을 소재로 한 전시, 체험행사, 공연, 판매 등의 다양한 행사가 축제형식으로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 책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주인공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연다. 국가별 출판 캐릭터 상품 모음전, 영상 설치전 '전갑배가 그리는 세상', 일러스트레이터 그룹 꼭두 특별전, 작가 체험전 등의 테마전시장에서는 어린이책 속의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과 숨겨진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출판도시의 거리 또한 캐릭터와 함께 하는 즐거운 놀이터가 된다. 다양한 거리 공연과 캐릭터 포토존, 독서 퀴즈대회, 작가와의 만남 등 30여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되고, 출판도시 입주사 및 외부 출판사들이 어린이 책을 할인가격에 판매하는 도서전도 열린다.

인쇄협회 관계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또한 우리나라의 인쇄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해 주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2010년도 정기총회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는 지난 3월 23일 호텔 PJ 카라디움홀에서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홍사룡 경기도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 유건호 대전 · 충남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을 비롯,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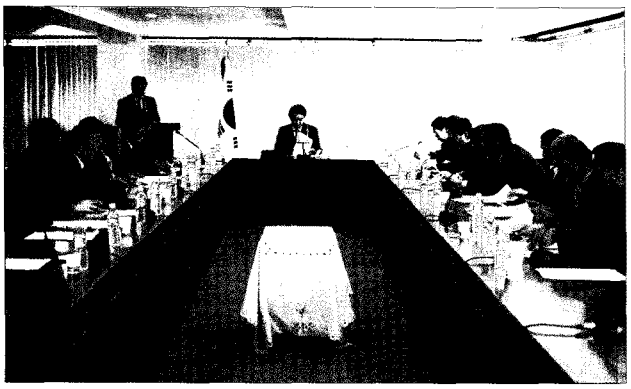
이날 총회에서 김진배 회장은 "오늘로서 회장직을 마무리한다"며 "3년 동안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회장 선출에 있어 홍사룡 경기도인쇄정보기술협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김진배 회장이 연임되었다. 김 회장은 취임소감에서 "다시 한 번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회원확충을 실행함과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께서 협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협회운영에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

란다"고 당부했다.

신임감사는 곽기현 부회장이 선출됐고, 서병기 감사가 유임됐다. 아울러 2009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대한인쇄연구소, 제1회 이사회 개최



대한인쇄연구소(이사장 고수곤)는 지난 3월 18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2010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현 고수곤 이사장이 연임됐다. 이날 고수곤 이사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면서 연구와 개발투자를 늘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인쇄마을지정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인쇄마을지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전) 회의가 지난 3월 19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정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쇄마을 지정을 위해 중구지역에서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을 펼쳐 1차로 5124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지난 3월 5일 서울시와 중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중구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인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1만명 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조속히 2차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조합에서는 「(가칭) 중구인쇄마을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3월 중에 중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인쇄센터, 교육생 수료식 가져

(재)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지난 3월 31일 서울인쇄센터 2층 교육장에서 제4기 차세대인쇄기술자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의수 단장은 "오늘의 수료식을 시작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동국대와 서울인쇄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재교육을 통해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산회, 서상준 신임회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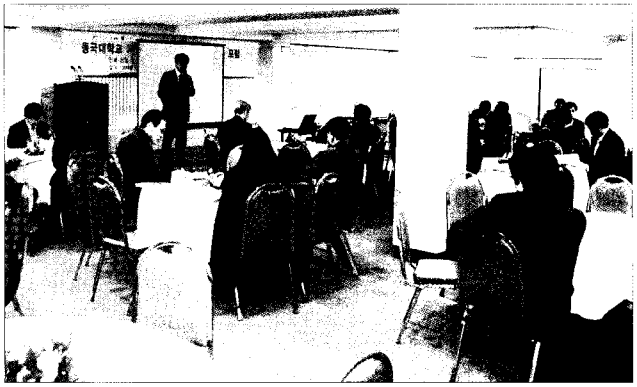
인산회는 지난 3월 28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 위치한 명봉산에서 시산제 및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상준 형제문화사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겸한 시산제에서 서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무사 산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서 조정석 이사장은 "산이 주는 즐거움을 즐길 줄 알고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키워 나가는 인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조합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앞장 서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경인쇄물 발주에 전자추첨시스템 도입

전라남도가 경인쇄물 계약시 특정업체로의 집중화를 막고 도내 영세 인쇄업체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전자추첨시스템을 개발,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추첨시스템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며 해당 실과에서 인쇄물을 발주 등록하고 인쇄업체에서는 응찰해 전자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응찰 자격은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도내 인쇄업체로 4월중에 업체등록을 안내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대상 업체의 자격을 심사해 5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쇄물 계약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이 대부분인데다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특수함 때문에 소수 업체로의 집중화가 심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추첨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우선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소액 경인쇄물을 대상으로 시범 추첨제를 운영, 향후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지면 대상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RIS, 제2회 포럼 개최



동국대학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단(단장 이의수)은 지난 3월 25일 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인쇄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인쇄산업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쇄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인쇄 표준화와 인쇄교육'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의수 단장은 개회사에서 "미래 인쇄산업의 화두는 디지털과 환경으로 집약되고 이는 관심을 넘어 생존의 차원으로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인쇄산업의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향후에는 인력 양성, 마케팅 방법의 다양화,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등 사업영역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심 있는 단체나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서병기 정민프린테크 대표가 진행했으며 송경철 박사가 '인쇄산업의 표준화', 오세웅 교수가 '인쇄산업에 있어 인쇄교육' 이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패널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청주직지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작 선정

청주시 직지의날 추진위원회가 2010 청주직지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작에 정병석의 '배움—장원급제를 향해' 와 박세정의 '인물포토존' 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외에도 전규철의 '고려혼인' 과 신현준의 '직지신물 발행', 방기성의 '직지명함 만들기', 차진영의 '청주직지축제 6행시 짓기', 이기락의 '직지와 친구들' 을 장려작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지의날 추진위원회는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177점을 접수했다.

심사위원회는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2편의 우수작과 5편의 장려작, 19편의 입선작을 결정했다. 대상작은 해당작이 없어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모작으로 선정된 우수작은 30만원, 장려작은 1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부상으로 지급되며,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6일 11시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더 좋은 필동 만들기 캠페인 선포식

서울시 중구 필동 경제인협의회(회장 이상권 · ㈜상진문화 대표이사)는 지난 4월 12일 필동 행복예식장 뷔페에서 '더 좋은 필동 만들기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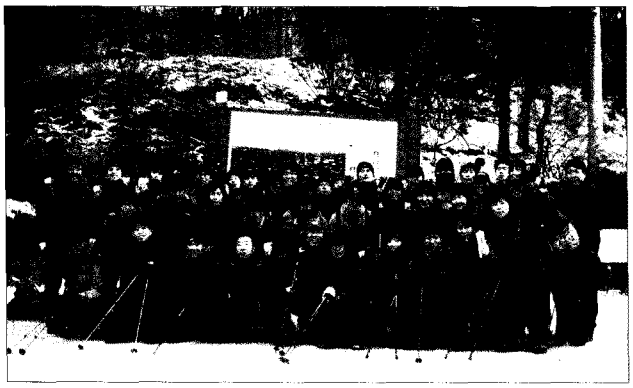
이상권회장은 개회사에서 "필동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지리적으로 인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주택가와 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하고 "주민과 공유하면서 인쇄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권 회장은 이를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삼발이 과적 및 야간주행금지 △화물차의 교통정체요인 해소하기 △오토바이 역주행 금지 △지게차 화물적재 후 도로주행 금지 △도로변에 물건 쌓아놓기 금지 △소음 진동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강석구 필동 동장도 "필동 경제인 협의회의 역할과 발전을 축하한다"고 밝히고 "필동 지역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일자리 나누기와 불우이웃 돕기, 기초질서 확립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인쇄 · 프리프레스뉴스

성도, 백두대간 종주 2차 소백산 등정



㈜성도GL/㈜성도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3월 26~27일 1박 2일 동안 소백산을 등정하여 지난 1월 백두대간을 종주하겠다는 선포식을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 백두대간 종주 코스를 완주하였다고 전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지칭하는 백두대간을 등정하고자 하는 성도GL/성도솔루윈은 백두대간 등정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여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성도GL/성도솔루윈은 2010년을 창의적인 미래를 위한 발전의 초석으로 삼아 'Graphic Dream, that we serve!' 의 미션 아래 고객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 전 직원 삼더 아카데미 교육 실시

㈜성도GL/㈜성도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4월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삼더 아카데미라는 독자적인 직원 교육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교육은 전반적인 시장상황과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부서에 한정되지 않고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주말을 통한 집중 강화 교육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직원 개개인의 발전을 시작으로 회사의 발전과 고객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엔컬처그룹, 김영진 사장 선임

㈜미래엔컬처그룹(구 대한교과서)은 지난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김영진 상무이사를 신임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 2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미래엔컬처그룹의 김영진 신임 사장은 재무팀장, 교재전략기획팀장, 교재사업본부장, 기획관리본부장을 거쳐 2008년 10월부터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신임 김영진 사장은 김광수 미래엔컬처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며 현대문학 양숙진 사장의 아들이다. 한편 부회장에는 김승주 전 서해도시가스 이사가 선임됐다.

신안테크, 네오프린텍 등에 Eco-mist 공급

신안테크㈜(대표이사 김순호)는 인쇄 자동화설비 전문 업체인 일본 KIDA사에서 종전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인 airless 가습기 Eco-mist를 네오프린텍㈜과 ㈜한성실업에 공급 설치했다. airless Eco-mist는 저소음과 미려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인쇄 공장 내부의 건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억제, 인쇄 효율을 증가시켜 준다. 에어컴프레셔 방식의 가습기에 비해 에어컴프레셔가 필요하지 않고 설치비용과 가습기 가동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설치 공간을 절약,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가습기 소음이 없어 쾌적한 작업장을 구현할 수 있다. Eco-mist는 2개의 토출구가 전면을 향해서 분사하는 방식과 6개의 토출구가 원형을 이루면서 분사하는 방식의 2가지 종류가 있어 인쇄 현장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가습이 가능하다.

성진애드컴, DTPIA대전센터 오픈

성진애드컴(대표 이정희)은 지난 3월 25일 대전지역 협력사 및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TPIA대전센터의 개설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센터의 가동에 즈음하여 이정희 대표는 "오랫동안 성원해 주신 고객에게 보답하고자 DTPIA대전센터를 오픈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더 나은 편리한 인쇄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의 사업 번창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환 대전센터장은 "앞으로 본사의 방침에 따라 대전지역 고객들을 위해 한발 앞선 서비스, 최상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쇄제품을 제작해 신속하게 배송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DTPIA대전센터는 대전시 동구 삼성동의 대전 인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일 2배송시스템과 온-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HP, 1일 완성 온라인 POD 서비스 오픈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4월 15일 디지털 인쇄 전문기업 '아비즈(www.photoabyz.com)'와 문서서식 포털 1위 업체 '비즈폼(pod.bizforms.co.kr)'이 파트너십을 맺고 온라인 POD(Print on demand)사이트 구축 및 디지털 인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비즈와 비즈폼이 새롭게 런칭 한 온라인 프린팅 서비스는 집과 사무실, 공공장소 등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문서를 인쇄 주문하면, 디지털 인쇄 업체 아비즈의 HP 인디고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쇄해 24시간 내에 주문자에게 발송되는 것이 특징이다. HP의 디지털 인쇄장비인 HP 인디고 프레스를 통해 온라인 사진인화사업과 포토북 생산을 주로 해오던 아비즈는 개인 및 기업의 각종 양식을 서비스 해 온 비즈폼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만큼 수량과 재질, 인쇄방식 등을 선택해 맞춤 주문형 디지털 인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진 뿐만 아니라 기획서, 제안서, 각종 서식문서의 출력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언제, 어디서든 출력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추게 되었다.

기존 외주 출력소의 서비스는 자료 업로드 및 견적 상담 등의 절차가 번거롭고 생산성이 떨어졌던 반면, 이번 비즈폼 출력 서비스는 웹 사이트 (http://pod.bizforms.co.kr/)에서 원하는 포맷, 수량, 견적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주문자가 원하는 만큼 소량으로도 출력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장 김병수 이사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비즈폼 POD 출력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쉽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춤형 출력 서비스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디지털인쇄는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코닥, 잉크젯 프린팅 솔루션 세미나 개최

한국코닥(대표 루이스 레벡)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닥 잉크젯 프린팅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코닥의 최신 스트림 잉크젯 기술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코닥 이수범 상무와 ㈜솔버스 서용수 대표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신승연 코닥 DPS 매니저가 2010년 코닥의 잉크젯 프린팅 비즈니스 로드맵을 소개, 시장의 변화와 불확실성속에서도 소수의 준비된 기

업만이 지속성장할 수 있다며 솔버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강화된 대고객 서비스 지원과 영업확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코닥 잉크젯 국내 파트너사인 ㈜솔버스의 하희수 부장이 스트림 잉크젯 솔루션을 소개했다. 기존 DOD방식의 낮은 생산성과 고해상도 인쇄시 높은 인쇄원가 발생하는 한계점을 원천적으로 극복한 스트림 기술이 적용된 프로스퍼 S10과 프로스퍼 프레스 시리즈를 소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이날 코닥은 인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스트림 잉크젯 기술은 코닥의 혁신적인 잉크젯 기술인 'STREAM'은 기존 디지털 인쇄와 비교하여 우월한 생산성과 저렴한 인쇄비용으로 대량인쇄가 가능해 상업인쇄, 인쇄물 발주처, 데이터센터, 마케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스트림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 175선수에 준하는 오프셋수준의 품질, 분당 200m의 빠른 속도, 총 비용의 절감, 다양한 인쇄미디어를 제공하여 트랜스프로모, POD출판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한편, 코닥은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2010 IPEX 전시회에서 코닥 스트림 잉크젯 프린팅 솔루션을 소개한다.

에스코아트워크, 필텍인터내셔널과 MOU 체결

에스코아트워크(지사장 이도상)는 지난 4월 16일 을지로 소재 Biz Center에서 ㈜필텍인터내셔널과 플렉소 및 레터프레스 분야 영업마케팅의 공식 파트너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MOU체결식을 가졌다.

㈜필텍인터내셔널은 2001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Mark Andy, Rotoflex, UVT, Schober, Martin, Cerutti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장비들을 국내에 공급하며 인쇄 품질 향상은 물론 업계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며 에스코아트워크와의 협약을 통해서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하게 되었다. ㈜필텍인터내셔날 박치범 대표이사는 "에스코아트워크와의 협약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에스코아트워크의 국내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도상 지사장도 "이번 ㈜필텍인터내셔널과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10년에는 플렉소 및 레터프레스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또한 5월 12일에 레터프레스와 플렉소용 CDI 및 HD 신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서교호텔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그파, 부산 동아출력에 아발론 설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동아 출력(대표 황윤호)은 최근 아그파의 아발론 N8-50XT를 도입,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동아 출력은 이번 프리프레스 설비 보강을 계기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윤호 대표는 이번 시스템에 즈음해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바로 동아 출력이 추구하는 미래 사업 비전이며 이번 도입을 계기로 부산, 경남지역 출판, 인쇄와 관련, 1년 365일 한결 같은 최고의 품질과 생산성으로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CTP 설비 확충을 계획하면서 여러 장비를 꼼꼼히 검토해 보고 안정성이 널리 입증된 아그파의 CTP시스템을 선택,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그파 코리아의 부산, 경남 영업 담당인 김성근 차장은 "이번 동아 출력의 최신 아그파 CTP 시스템의 도입으로 동아 출력이 부산, 경남 지방에서 그 성공적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그파코리아는 부산, 경남지역의 인쇄업체들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부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마음컴, 착한 명함 캠페인 진행

㈜마음커뮤니케이션(대표 박진만)은 지난 4월 19일 굿네이버스와 함께 사회공헌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마음커뮤니케이션은 인쇄종합쇼핑몰 '미스터에이(www.mar.co.kr)'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명함을 주문 시, 한 통당 300원의 수익금을 굿네이버스를 통해 국내외 빈곤아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명함뿐만이 아닌 CD, 봉투, 스티커, 상자 등 다양한 인쇄물로 점차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마음커뮤니케이션 박진만 대표는 "이제 기업도 사회공헌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착한 명함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국오키시스템즈, 데모센터 개관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유동준)는 지난 4월 12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 내에 데모센터를 개설했다. 데모센터에는 개인용 프린터에서 기업, 전문가 프린터까지 오키시스템즈 제품의 풀 라인업이 전시되고 상시 지원 도우미를 통해 1:1 시연 방식으로 운영되어 LED 프린팅의 장점인 초고속 HD 프린팅, 소형화, 강화된 내구성 등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한국오키시스템즈는 지난해까지 총판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직접 판매 방식도 추가, 판매채널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용산 데모센터 개관은 이에 따른 마케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한국오키시스템즈의 유동준 대표는 "2010년은 오키가 한국에서 법인사업을 시작한 지 만 5년이 되는 해로 국내 레이저 프린터 시장 빅 5로 자리를 굳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업시장에서는 오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상승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 및 일반 소비자시장에 오키 브랜드와 우수한 LED 프린팅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소개할 필요하다"고 이번 데모센터 개관의 취지를 말했다.

제록스프린터스, 직장인 탐구생활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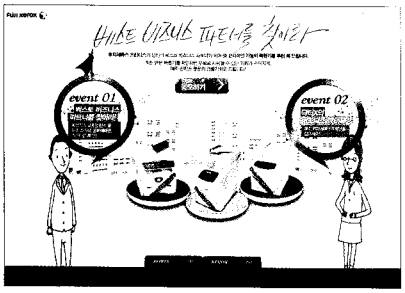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지난 4월 5일 신입사원 채용시즌을 맞아 '닥터X, 직장인 탐구생활' 이벤트를 열고 총 70명을 선정해 푸짐한 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에 따르면 직장인 탐구생활 이벤트는 상반기 채용시즌을 맞아 어떤 신입사원과 일하고 싶은지,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벤트 참여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사랑받는 직장인의 모습을 탐구하고 응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되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총 70명에게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의 행운이 전달되었다.

이 기프티콘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푸짐한 간식으로, 당첨된 20명은 크리스피크림 어소티드 하프더즌 2세트를, 50명은 던킨 교환권(1만원)을 받게 된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마케팅팀 백민정 차장은 "후지제록스 프린터스가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신입사원 채용시즌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최적화된 오피스 환경을 제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에 힘을 실어 주고자 기획하게 되었다"며 "많은 직장인들이 신입사원을 맞아 힘차게 일하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록스프린터스, 복합기 구매 프로모션



후지제록스 프린터스(대표 황유천)는 지난 3월 29일 A4 복합기 3종 구매 고객과 다양한 이벤트 참여고객을 대상으로 '복합기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기 구매 프로모션은 새봄을 맞아 한층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원하는 소호 및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비즈니스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여,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되었다. 행사 대상 제품은 A4 컬러 레이저 복합기 DPC1190FS, DPC3290FS, P3100MFP 총 3종으로 행사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모두에게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GS25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과 A4용지 한 박스를 증정했다.

제록스, 'Thank You COLOR' 캠페인 실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4월 5일부터 새 광고 캠페인 'Thank You COLOR'를 선보이고 '컬러를 통해 모두가 즐거운 비즈니스 세상을 만들자'는 컨셉의 새로운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후지제록스는 'Thank You COLOR'는 흑백 문서 대비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높은 컬러 문서를 통해 직장인들의 생활이 더욱 즐거워지고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규 광고 캠페인은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광고 및 경쟁사들의 광고와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직장인의 행복한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와 'Thank You COLOR'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통해 컬러 문서의 사용이 주는 장점을 재미있고 신선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신상헌 한국후지제록스 마케팅실장은 "문서, 직장인이라는 단어가 지닌 이성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컬러 일러스트를 통해 감성적이고 따듯한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친근감을 부여한 광고 캠페인을 통해 컬러 문서가 지닌 긍정적인 의미를 직장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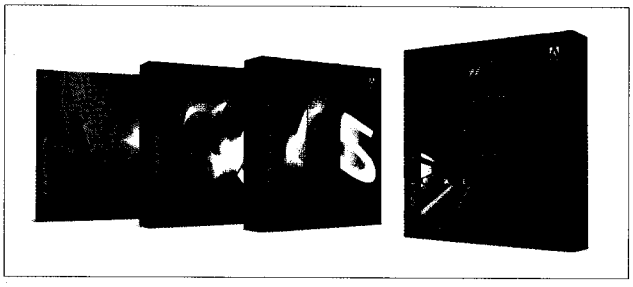
한국HP, 친환경 캠페인 실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4월 13일 HP정품 폐 카트리지를 훼미리마트에 반납하는 고객에게 구매 가격의 1000원 할인을 제공하는 '1000원의 행복'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HP와 훼미리마트가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HP와 훼미리마트의 친환경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오는 4월 말까지 다 쓴 HP 정품 카트리지를 가까운 서울 전 지역 훼미리마트(서울 지역 약 1100여 개점) 매장을 방문해 반납하면 훼미리마트를 통해 구입한 제품 금액의 1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한국엡손, 소형 프린터 출시

한국엡손(대표 구로다 타카시)은 가정과 오피스 환경에서 적합한 소형 사이즈의 모노 레이저 프린터인 'AcuLaser M1200'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AcuLaser M1200은 가로 38.5cm, 세로 27.9cm, 높이 26.1cm의 콤팩트한 크기로 복잡한 사무환경에서도 공간활용도가 좋으며 분당 20ppm(A4기준)의 동급 최강의 인쇄 속도와 한 달 동안 약 1만5천장의 인쇄에도 무리가 없는 견고함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토너를 약 1800장을 출력할 수 있는 표준용량과 3200장을 출력할 수 있는 대용량의 2가지 타입으로 구성, 출력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유지비 절감에 효율적이다. 한국엡손 서치헌 부장은 "AcuLaser M1200은 퍼스널 데스크탑 프린터로 소호와 홈 오피스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모델" 이라고 말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5 영문판 출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오는 5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5 (Adobe Creative Suite 5, 이하 CS5)' 신제품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어도비CS5제품군은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을 위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다양한 미디어와 디바이스를 위한 창의적인 콘텐츠가 가장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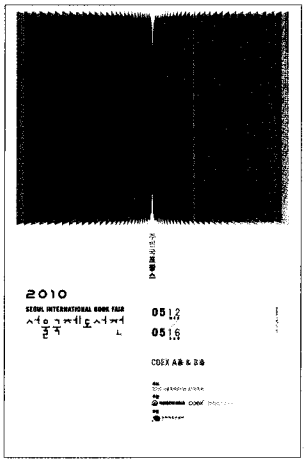
CS5버전은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툴들의 기능이 대폭 향상되어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의 워크플로를 눈에 띄게 향상시켜 줄 것이다. 또한 CS5 버전에 최초로 웹사이트나 기타 소스에서 생성된 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해 주는 옴니추어(Omniture)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마케팅 효과 측정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어도비 CS5 제품군은 5가지의 통합 제품과 15개의 단일 제품, 그리고 관련 기술과 새로운 어도비 CS 라이브 서비스와의 통합으로 구성된다. 통합 제품으로는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툴을 총망라하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5 마스터 콜렉션, 목적에 따라 각각 최적화된 ▲디자인 프리미엄 ▲웹 프리미엄 ▲프로덕션 프리미엄 ▲디자인 스탠다드가 있다. 단일 제품은 포토샵 CS5, 일러스트레이터 CS5, 인디자인 CS5, 플래시 카탈리스트 CS5,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 드림위버 CS5, 프리미어 프로 CS5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CS5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개별 또는 통합 제품으로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지준영 대표이사는 "크리에이티브 경쟁력에 있어서 효율적인 작업환경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그대로 표현해줄 수 있는 툴과 이를 모든 미디어를 통해 잘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도비는 이번 CS5 출시를 통해 사용자들이 비즈니스에서는 물론 개인의 창의적 경쟁력 면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홈페이지_ www.adobe.com/kr

출판 및 관련업계 뉴스

2010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책과 통하는 미래, 미래와 통하는 책'이란 주제로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프랑스로 베르나르 베르베르, 마르크 레비, 에르베 뷔레, 소피 오두인 마미코니안 등 프랑스 유명 작가 초청행사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로 된 원서 및 프랑스 관련 도서 전시, 프랑스출판포럼, 문화행사 개최 등 한불 출판인들의 출판 교류 네트워킹의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해 도입된 전문가의 날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올해도 개막일인 5월 12일은 전문가의 날로 운영된다.

특히 도서전 현장에 저작권 센터를 설치하여 도서전 기간 동안 국내외 출판사 저작권 담당자 및 저작권 전문 에이전시들이 저작권 수출입 상담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된다.

독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작가와 출판사 선정

독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작가와 출판사는 어디일까?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오는 5월 12일부터 닷새 동안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0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독자와 작가, 독자와 출판사의 소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독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 만나고 싶었던 국내외 작가와 출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로는 공지영 씨, 출판사는 문학동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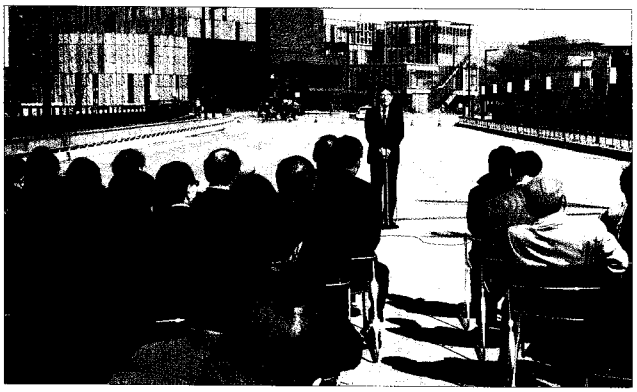
만나고 싶은 국내 작가(상위 20위)로 공지영, 권비영, 김연수, 김영하, 김진명, 김홍신, 김훈, 박민규, 박완서, 성석제, 신

경숙, 은희경, 이문열, 이외수, 정이현, 조정래, 진중권, 최인호, 한비야, 황석영 씨가 뽑혔다.

만나고 싶은 국내 출판사(상위 20위)는 김영사, 다산북스, 돌베개, 랜덤하우스코리아, 문학과지성사, 열린책들, 예담, 위즈덤하우스, 이레, 문학동네, 문학의숲, 민음사, 살림, 샘터, 소담출판사, 시공사, 창비, 한겨레, 해냄, 황금가지가 선정됐다. 또한, 한국의 독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해외 작가로는 소설 '개미'로 국내 독자에게 친숙한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선정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자들이 만나보고 싶어 하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작가초청 이벤트 –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작가의 작품 소개 및 작품 세계에 대하여 독자들과의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만나고 싶은 출판사들로 선정된 출판사들의 참여도 적극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응칠교 답교 행사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과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회장 김언호)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 파주출판도시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응칠교를 아시나요'라는 다리 밟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분향과 참배를 시작으로 응칠교에서 내 · 외빈소개와 경과보고를 마친 후 이기웅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김언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장, 류화선 파주 시장,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및 축사가 진행 되었다. 이후 무형문화 제 57호 기능 보유자인 박공숙 외 2인이 추모곡을 불러 분위기를 한층 엄숙하게 하였으며, 테이프 커팅 후 응칠교를 걸으며 안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기획한 이기웅 이사장은 "다리의 머리판에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 안에 가시가 돋으리라'는 안 의사의 그 유명한 유묵 글씨가 새겨져, 출판도시에 세워진 안중근 동상과 더불어 아름다운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리를 설계한 건축가 승효상씨는 "교량의 기본적인 설계원칙에 충실한 디자인을 했으며 가로등 열두 개를 추가하여 '잇는' 기능의 효과를 강조하고 이 도시로 들어오는 이들을 환영하며 불 밝히는 풍경은 이 교량의 장소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앞에 있는 응칠교는 안중근 의사의 아명인 응칠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간행물윤리위, 청소년저작발굴 및 출판지원 사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총 상금 1억원을 걸고 청소년 대상 출판물의 창작 활성화 및 책 읽는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10 청소년저작발굴 및 출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문학, 인문교양, 자연교양, 실용교양 등 전 분야에 걸쳐 주인공이 청소년이거나 주 독자층이 청소년인 원고를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청소년 대상 저작물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작가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도 가능하다. 총 10편을 선정하여 저자에게 500만원의 저작상금, 출판사에 500만원의 출판제작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난 빨강〉(창비) 등 총 10편을 발굴 지원하여 초판 기준 2만7천부가 발간되었으며, 〈여고생의 치맛단〉(휴먼앤북스), 〈맛있고 간편한 과학 도시락〉(은행나무) 등 재판을 통해 판매에도 기대 이상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 해에도 역량 있는 신인 및 기성 작가들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출판디자인전문가과정 개설

남부여성발전센터(nambu.seoulwomen.or.kr)는 서울시의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사업인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판디자인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서울시내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는 출판디자인 직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판디자인전문가 양성 및 취업과정을 개설했다.

교육내용은 실무분야의 디자이너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비롯해 인디자인(InDesign), 포트폴리오 제작실습, 출판디자이너 직업의 이해, 취업대비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료생들은 관련 인쇄출판 사무실 등으로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모집 대상은 출판 및 편집디자인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만 35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여성으로 교육비는 무료(교재비 별도)이다. 교육일정은 5월 3일 개강해 9월 30일 종료되며,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한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된다.

문화부, 불법복사물 1056종 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최근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210개 업소에서 1056종, 6108부의 불법복사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 2200여개 업소 중 210개 업소가 불법복사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적발 업소의 40%인 85개 업소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발수량도 전체의 55%인 3,340점이 교내 복사업소에 의한 것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적발된 복사업소 중 상습성의 입증이 가능한 10명의 복사업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저작권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이번에 불법복사가 적발된 대학교 교내의 85개 복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가 나서서 불법복사를 근절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재생지사용 출판 지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재생종이 사용 출판을 권장하는 '숲을 살리는 녹색출판'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재생종이 샘플북을 발행하고 교보문고와 함께 녹색출판 온라인 도서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생종이 샘플북은 제지회사별로 생산되는 재생 인쇄용지를 모아 재생종이의 인쇄정보와 실제 샘플을 출판사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녹색출판 마크 인증기준'에 적합한 16종의 재생 인쇄용지가 수록된다. 샘플북 발행을 계기로 재생종이 사용 출판을 시도하고 싶으나 재생종이 정보 및 유통시스템이 부족하여 재생종이 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했던 출판계의 불편함을 해소, 재생종이가 일반 백상지와 비교해 인쇄품질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샘플북 제작에는 국내 4개 제지회사가 동참하였으며 샘플북을 희망하는 출판사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숲을 살리는 녹색출판' 캠페인은 현재까지 64종 19만권의 재생종이 도서가 발행됐다.

인큐브테크, 디딤돌과 사업공조 조인식

㈜인큐브테크(대표이사 이원경)와 교육 전문기업 ㈜도서출판 디딤돌(대표이사 이기열)은 지난 4월 8일 서교호텔에서 국내 · 외 디지털 학습 콘텐츠 사업공조를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공조를 통해 양사는 국내 교육콘텐츠 업계의 전자책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전자책을 통한 교육 콘텐츠 수급과 사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큐브테크의 이원경 대표이사는 "전자책의 발달로 교육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단말기를 통해 문제를 풀고, 단말기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채점받는 일이 가능해 질 것이다"라며 "교육 컨텐츠 기업인 도서출판 디딤돌과 전자책분야의 핵심 기술기업인 인큐브테크의 결합은 교육시장에 전자책 혁명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한편, ㈜인큐브테크는 최근 한국 전자책 사업을 위한 국내 주요 출판사 및 대형서점의 공동출자법인인 ㈜한국이퍼브와 출판문화 콘텐츠 기업인 ㈜위즈덤하우스와 계약을 맺고, ePub표준에 맞춘 대규모적인 전자책 콘텐츠를 생산중이다.

경연전람, 코리아팩 2010 기자간담회

㈜경연전람(대표이사 김영수)은 지난 4월 12일 여의도 소재 렉싱턴호텔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일산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2010)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15회째를 맞이하는 코리아 팩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유망 전시회로, 올해는 참가업체가 25개국 국내 · 외 700개 업체가 1500부스로 늘어나는 등 규모부터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시회 주최기관인 ㈜경연전람에 따르면, 전체 바이어 수는 지난해 2만7천명보다 약 30% 이상 증가된 3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총 5천5백만 불 이상의 구매 상담을 통해 1천8백만 불 규모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연전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지식경제산업인 포장산업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폰트협회, COS 인증제도 실시

한국폰트협회(회장 강경수)는 5월부터 출력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COS(Clean Output Serice)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체를 사용하여 출력서비스를 하거나 자체 제작물을 출력하는 곳(CTF 및 CTP보유 업체)을 중심으로 기존에 서체를 정상적인 공급선을 통해 정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서체회사들이 불법복제단속이라는 방식으로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힘써 왔으나 이와는 별개로 정품사용자들을 위한 혜택이 미비했다. 또한 불법사용자들과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오히려 정품사용자가 원가부분에서 손해를 보거나 출력비 산정에 있어 불법사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서체회사에서는 정품사용자들에게 COS인증제도를 통해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정품사용자와 불법사용자를 구분하고 이 현황을 중심으로 등록업체에 대하여 향후 A/S발생 시 무상지원(한시적)과 업그레이드와 추가 구매 시 분명한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업체는 산돌커뮤니케이션, 아시아소프트, 윤디자인연구소, 제이이티솔루션, 직지소프트, 폰트뱅크, 한양정보통신 등 7개사다.

출제모, 절세가이드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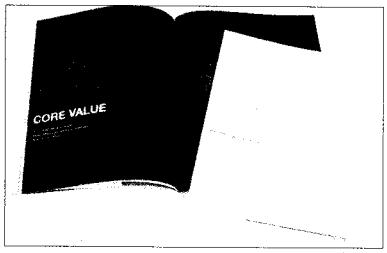
출제모(회장 김호문)는 지난 4월 8일 서울시 서대문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울북인스티튜트(SBI) 강당에서 8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정훈 세무사를 강사로 〈프리랜서, 1인출판사, 소기업을 위한 절세가이드〉라는 주제로 열렸다. 출제모는 저자,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출판사 운영자/제작자/영업자, 출력소, 지업사, 인쇄사, 제책사 등과 같이 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이다.

홈페이지_ http://daum.net/bookmake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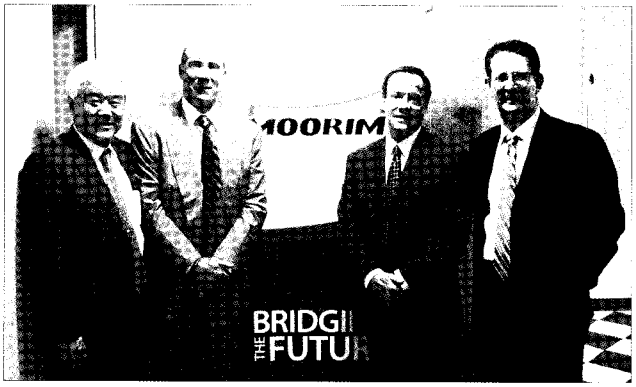
제지뉴스

무림, 2010 브로슈어 제작



무림(대표 김인중)은 최근 2010년도 펄프 · 제지부문 브로슈어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로슈어는 무림 펄프 · 제지부문의 주요 프로필과 생산제품은 물론 환경경영과 기술경영, 사회공헌활동 등 무림이 진행하는 주요 활동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무림은 이번 브로슈어를 통해 오는 2011년에 완공될 일관화공장으로 글로벌 펄프 & 페이퍼회사가 되겠다는 무림의 'Vision 2011'은 물론, 일관화공장 제품의 장점과 건설현장도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애뉴얼 리포트 기능을 겸해 고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국, 영문으로 각각 제작한 이번 브로슈어는 표지는 최고급 인쇄용지 네오럭셔리 190g/m², 내지는 네오럭셔리 120g/m²으로 제작해 샘플북 기능도 겸하고 있다.

무림, 미국 Paper 2010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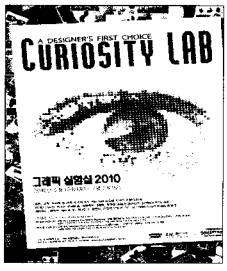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Paper 2010에 참가해 제품경쟁력과 비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NPTA(North America Paper Trading Association)와 AF&PA(American Forest and Paper Association)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서 무림은 국내 유일의 펄프 · 제지 일관화공장 건설을 통해 글로벌 Pulp&Paper 회사로 도약하는 무림의 비전을 알렸다. 특히 미주지역 고객들의 관심사에 맞춘 각 단계별 구체적인 생산지종과 생산현황을 소개해 Paperlink를 비롯한 25개 대표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인중 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당사의 제품경쟁력을 홍보하고 신규 거래선을 확보, 향후 적극적인 수출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림, ERP 킥-오프 및 일관화공장 성공 기원식

무림P&P(대표 김인중)는 지난 3월 31일 울산공장에서 ERP 킥-오프 및 일관화공장 성공 기원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다.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그릴 ERP 시스템 도입과 일관화공장 건설에 대한 직원들의 각오와 자세를 담은 동영상 시연과 일관화공장의 카운트다운을 알린 제막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자메시지 빨리 보내기, 인간탑 쌓기 등의 이벤트도 열렸다. 한편 김인중 사장은 이날 "'Global Pulp&Paper Company'로 도약하는 지금 이 순간의 주체는 무림P&P 임직원 개개인이라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원페이퍼, Curiosity Lab _ 그래픽 실험실



삼원페이퍼(대표 이연욱)는 오는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중곡동 삼원페이퍼갤러리에서 A Designer's first choice _ Curiosity Lab_그래픽 실험실 2010전시회를 연다.

Curiosity Lab은 유럽, 미국, 아시

아 등 전 세계에서 수집된 그래픽 인쇄물을 통해 세련된 상업적, 기능적 디자인 면모와 더불어 실험적인 디자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제 마케팅으로서의 디자인 제작물, 다양하고 독특한 그래픽 디자인물을 접해 볼 수 있다. 오는 6월 12일 오후2시에는 계간 Graphic의 아트디렉터 김영나 디자이너와 조현열 작가의 세미나가 무료로 열리며 5월 20일에는 Special Portfolio Binding의 주제로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재미있는 바인딩을 만들어 보는 유료 워크숍도 준비되어 있다.

한국제지, 신임 대표이사 김창권 사장 선임

한국제지(대표이사 김창권)는 지난 3월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창권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창권 대표이사는 1954년 생으로 원주고,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LG전자와 LG필립스 디스플레이 등에서 경영기획, 해외사업 임원을 거쳤으며 지난 2009년 9월부터 한국제지 부사장으로 재임해 왔다.

한국제지 2009년 환경경영 대상 현판식

지난 3월 25일 한국제지 온산공장에서 2009년 울산 환경경영대상 현판식이 실시됐다. 한국제지는 친환경사업장 구축을 위해 대기 및 수질, 폐기물 처리에 과감한 환경투자를 한 것을 비롯해 ISO 14001,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오염물질저감 5-15 자발적 협약, FSC 인증, 스팀 수급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해양투기 폐수 슬러지의 획기적 재이용 개발 등의 활동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높이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울산환경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제지, 펄프제지기능사 시험에 대거 합격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3월 28일 펄프제지기능사 자격증반 수험생들이 울산 여상에서 1차 필기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자격증반은 기술연구소와 안전관리파트 사내강사들의 강의로 한 달반 가량 진행되었고 그 동안 자격증반 50명 및 개인 응시자 포함 총 71명이 응시하여 60명 합격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온산 공장은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실기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동호 팀장, 대한화학회에서 감사패 받아

지난 3월 19일, 제 4회 울산 화학의 날을 맞아 대한화학회 울산지부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화학인의 밤 행사에서 한국제지 연구 1팀 윤동호 팀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윤동호 팀장은 그간 기술 연구에 힘쓰고 울산 화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뉴스

코닥, FOSE서 도큐먼트 캡처 플랫폼 선봬

코닥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FOSE 2010에 참가, 최신의 캡처 플랫폼을 선보였다. 코닥 비즈니스 솔루션&서비스 그룹의 도큐먼트 이미징 총 관리자인 Tony Barbeau는 "정부가 비용 절감과 주민서비스 증진을 기대하는 만큼, 정보 사용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 되었으며 전 국가적인 전자건강기록에 대한 요구부터 각 주의 실행 예산까지, 종이 관련 비용은 효율성에 방해되는 주요 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주정부 최고정보관리책임자 연합(NASCIO)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문서 관리 기술이 어플리케이션과 장비의 우선사항 목록에서 3위에 올랐으며 문서 프로세스가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최고정보관리책임자들의 발전된 시각은

2010년에 서비스 통합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코닥 비즈니스 솔루션&서비스 그룹의 도큐먼트 이미징 미국, 캐나다 지역 영업 관리자인 Russell Hunt씨는 "문서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기관들은 단순한 파일의 디지털화와 저장을 넘어서는 캡쳐 능력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일을 자동화된 사업 프로세스로 연결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줄 완전한 솔루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고객과 의사소통을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로토메일, 코닥 PROSPER 5000XL 설치

이탈리아의 인쇄사인 Rotomail Italia가 KODAK PROSPER 5000XL Press를 설치하는 코닥의 유럽 첫 고객으로 확정되었다고 코닥은 밝혔다.

KODAK 스트림 잉크젯 테크놀러지에 기반하고 있는 PROSPER 5000XL Press는 서적, 다이렉트 메일, 카탈로그의 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프셋 수준의 품질과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되고 나면 이 시스템은 로토메일 이탈리아의 새 공장이 들어선 밀라노 비그난테에서 즉시 작업에 투입되어 컬러 서적 및 다이렉트 메일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로토메일 이탈리아의 지오바니 안토누쪼 CEO는 "PROSPER 5000XL Press는 컬러 서적을 제작하는데 이상적이며 '주문형 실사책(Real book on demand)' 프로젝트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 빠른 서적 생산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이렉트 메일 작업과 새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작업에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 대형 출판사 CPI, HP T300 웹 프레스 도입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유럽의 대형 출판사인 CPI 그룹이 HP T300 잉크젯 웹 프레스를 유럽 최초로 도입 완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에 설립된 CPI 그룹은 한해 4억 2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 기업으로 약 2000개 이상의 출판업체와 거래하며 연간 25만종의 책을 6억 권이나 출간하고 있다. POD 출력, 단행본 출력부터 대형 시장용 출판(흑백 또는 2컬러) 서비스를 뿐만 아니라 책 표지나 재킷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CPI의 관계자는 출판사의 다양한 출력 량에 부합하고자 HP T300을 선택했으며 이 제품은 뛰어난 생산성과 제품 신뢰성, 저렴한 운영비와 비코팅 표준 출판 용지에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제품은 중소량의 문고판을 출력하는데 있어 CPI그룹의 새로운 '퀀텀(Quantum)' 솔루션의 핵심이 되고 있다.

HP 잉크젯 고속 생산 솔루션 오렐리오 마루기 부사장 겸 총책임자는 "HP T300은 현 시장에서 책 출판의 경제학을 다시 쓸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제공한다"며 "CPI 그룹은 T300을 도입함으로써 출판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된 높은 비용과 오프셋 방식 인쇄에 따른 자원 낭비 없이 정확한 수요에 공급을 맞춰야 하는 역동적인 새로운 시장에 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HP, 중국서 기업용 프린팅 제품 및 솔루션 발표

HP는 지난 4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HP 기업용 프린팅 제품 및 솔루션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존 솔로몬 수석 부사장은 디지털 프린팅 시대의 도래를 알리면서 "프린팅 산업은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진화에 나가고 있다"며 "오는 2012년에 이르면 아날로그 프린팅 시장이 디지털 프린팅 시장으로 변환을 거치면서 성장 규모는 3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매년 2000억 장 이상의 출력물들이 각종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이 중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통합출력물관리 솔루션 및 신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HP는 중소기업의 이미징 프린팅 환경을 최적화하고 해당 기업의 출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계약형 통합출력관리서비스 '퀵페이지(QuickPage)'를 연내 출시하고 SMB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HP는 이날 다양한 레이저 프린터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업계 최초로 출력물 요청 시 본 전원이 들어오는 자동켜짐 기술이 도입된 신제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종이 사용량을 25% 줄여준다는 양면 레이저 프린터 경우에는 공간절약형 모델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